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농촌 거주 의사

A Study on Living Intention to Rural Area of Middle Aged People Living in Urban Area

박 선 아* 홍 형 옥** 이 현 정***
Park Seonah, Hong Hyung-Ock, Lee Hyu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know perception of rural area, intention of going to rural, decision factors. It is social survey research with questionnaire which was conducted among citizen of Incheon during Oct. 11~28, 2010. The data from 100 respondents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t-test, crosstab, and factor using SPSS 18.0 statistic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most of the middle aged people(90%) are interested in living in rural area, and 96% of middle aged people have positive perception of living in rural area. 2) most of respondents(86%) have intention to living in rural area, and it is different between man and women. 3) most of respondents think distance to hospital is more important than others. Also, women consider location more than men, high income people consider quality of housing more than others, and older people consider neighbor and leisure more than other people. In conclusion, environment of housing in terms of location, community center, and leisure facilities need to be developed.

Keywords: Rural Area, Living Intention, Middle Aged People
주 요 어: 농촌, 거주 의사, 중·장년층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MF 때에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요즘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가와 건강을 위하여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농촌 진흥청에서 발간한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매뉴얼'에서는 은퇴자에게 농촌이 갖는 장점으로 정년이 필요 없는 농업이라는 일거리가 있다는 점과 쾌적한 자연환경(박공주 외 2인, 2006)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도시 은퇴 인구의 농촌이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으로서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왔다(윤순덕·박공주, 2006). 은퇴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 지역 내 가구 수입의 증가, 실업률의 감소, 지역세수의 증가, 공공서비스의 유치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데 일치된 결론(윤순덕·박공주, 2006)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거주의 움직임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 교육이 마무리 되는 중장년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이주와 연고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서수복, 2010), 증가하는 도시민의 농촌성(Rurality)에 대한 관심에 따라 농촌 재구성의 적절한 틀을 구축하여 우리 삶의 기본 방향이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농촌 지역 사회(최수명, 2006)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초 조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층인, 중·장년층의 주거 이동, 특히 농촌 이주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주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며 기존의 농촌 이주 정책을 검증하며 연구 결과에 따른 주거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국내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함으로써, 농촌 거주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과 의사, 그리고 고려 사항이다. 연구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농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조사 대상자의 농촌 거주 의사는 어떠한가?
3. 조사 대상자의 농촌 거주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 준회원 (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PhD

1. 중·장년층의 특성

중·장년층이란, 40-50대의 연령층으로 가족 생활의 관점에서 노부모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사회 발전의 주역을 지칭한다(류현주 외 3인, 2008, p.145 재인용). 40-50대의 중·장년층세대는 그동안 주택과 부동산 수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이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가운데 가장 예탁 자산 규모가 큰 나이대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소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류현주 외 3인, 2008) 연령대 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대부분은 베이비 붐 세대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대체로 한국 전쟁 이후 1955년에서 산아제한이 있기 전인 1963년까지 9년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이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적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치관이나 사회시스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서수복, 2010). 최근,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 도시민 중 56.3%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농림부, 2006)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농촌 거주와 귀농의 의미

농림 수산 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한 근 18년간의 귀농현황을 볼 때, 농촌 거주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나타났으며, 근 5년간의 귀농현황을 볼 때, 30대의 귀농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농림부, 2009)을 추진 중이다.

귀농의 원래 의미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한다(박공주 외 2인, 2007). 한 연구에서는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귀농형실버타운'이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귀농'으로 보았다. 따라서 귀농인의 영역을 은퇴자가 농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겨서 일정 정도의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됨까지를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박공주 외 2인, 2007). 그러나 농림부(2006)의 귀농 경로에서는 전통적인 귀농의 정의처럼 농촌에서 나갔던 사람의 귀환만이 아닌 도시에서 유입된 인력, 그 외에 농촌에서만 살았고 떠났던 적이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박공주 외 2인, 2007, p.11 재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농촌에서 갑자기 거주하는 것은 적응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음에 따라, " 점진적 이행과정으로서, 교류를 통한 쌍방향적 주생활 패턴이 필요"(최정민, 2010, p.90)하다. 이러한 주생활 패턴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선진국인 일본에는 이미 '멀티헤비테이션'[2]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 생활에 회의를 가진 사람들의 농촌으로의 귀향운동이 일어났고(박공주 외 2인, 2006), 1997년, IMF의 한파로 실직으로 인한 귀농이 주를 이뤘다(김양희 외 2인, 2007). 그러나 최근은 전과 달리 각박한 도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웰빙(well-being)의 바람과 함께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추세이다(박공주 외 2인, 2007, p.10 재인용).

이러한 추이들 속에서 농촌 거주 시 고려하는 사항들 또한 변하였다. 조록환(1998)의 농촌 이주자들의 이주 결정요인은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서, 농업의 전망, 실업 및 실직을 당해서 등, 도시 축출요인(pushing factors; 도시에서 거주함으로써 감당해야하는 부담, 즉 환경오염, 높은 물가, 주택난)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05년 연구에서는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 결정요인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선행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서 등 농촌 흡입요인(윤순덕 외 3인, 2005)이 다수였다.

3. 농촌 거주 및 귀농의 사례와 정책

3.1. 농촌 거주 및 귀농의 사례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돌아가 새 일거리로 농업을 찾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충청남도 청양으로 귀농한 40대의 한 장년이 국비지원 귀농교육을 이수하고 2009년 2월부터 시설하우스 8동에 대추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 웹디자이너가 도시생활에 지쳐 전라남도 구례로 내려가서도 서울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2. 농촌 거주 및 귀농 지원 정책

농식품부에서는 귀농 희망자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하자는 목적 아래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기초정보를 제공받으며, 귀농 결심 단계에서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 그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귀농 실행단계에서는 지자체 연계, 창업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다음의 그림은 정책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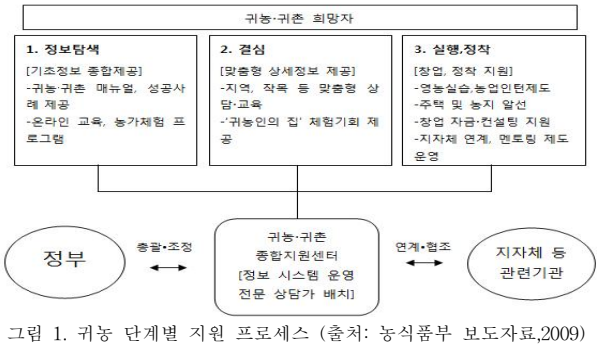

그림 1. 귀농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2009)

4. 농촌 거주 및 귀농의 선행 연구

농림부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

[2] 일본 부동산용어 사전은 이를 '도시노동자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 넓은 집을 가지고 주말에는 이러한 전원도시형주택(세컨드하우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평일에는 직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싱글세대용 주택, 즉 도시형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고도의 도시기능과 전원지대의 풍부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향유하자는 것'(최정민, 2010,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 이주 의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3%가 은퇴 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2006). 또한 농촌으로 은퇴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 첫째로는 가족의 건강(37.3%), 둘째로는 여가생활(32.6%)을 들었다.

윤순덕 외 3인(2004)의 연구에서는 농촌으로의 이주의사가 매우 많다(47.6%)로 긍정적이었으며, 농촌 거주 준비에 대하여는 '전혀~별로하지 않고 있음'(45.1%)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다. 농촌 거주 준비 기간은 대부분 1년이상의 준비가 필요(윤순덕 외 3인, 2004)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은퇴 후에 농업이나 여러 일거리에 관한 귀농 이주 희망자들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윤순덕 외 3인 2004)이었다. 또한, 농촌 환경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농촌 거주 시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윤순덕 외 3인, 2004)을 시사한다.

또한 서수복(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 거주 결정요인들 중 혈연(자녀와의 거리, 자녀와 동거, 고향거리)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농촌 이주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입증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와 그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100명으로 하였다. 표본은 인천광역시의 한 종교단체와 아파트형 중소기업 단지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중장년층을 유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10부 중에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0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와 그 고려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도구는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18문항, 농촌 거주 의사 12문항, 고려사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18문항은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정도와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농촌 거주의 의미와 농촌 이미지를 묻는 문항들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매우 없다, 2점은 없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있다, 5점은 매우 있다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농촌 거주 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12문항은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 거주 의사 결정요인 선행연구(윤순덕 외 3인, 2005)를 참고해 거주 의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를 분석한 주거 결정 및 이주 요인 결과(서수복, 2010)를 참고하여 구성한 후, 요인분석을 하여 명명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for 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 way ANOVA, 요인분석,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과 거주 의사, 그리고 거주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특히 농촌 거주 시 주거 환경 고려 사항을 묻는 문항은 요인분석으로 명명한 뒤 분석에 적용하였다.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 경제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 거주자의 성별은 여성 64.0%, 남성 36.0%로 여성이 약 30% 더 많았다.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6.0%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0%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주부가 40.0%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배우자의 직업은 26.3%가 자영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79.0%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으며, 가구원수로는 4명이 52.0%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3.0%로 가장 많았다.

1.2. 조사 대상자의 주거 특성

조사 대상자의 72.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소유 형태는 73.0%가 자가 소유를 하고 있었다. 거주 기간은 46.0%가 2년 이상~ 5년 미만 이었으며, 4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30~40평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0%였다. 분석 시에는 조사대상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가구원수, 가구의 소득, 주거특성과 만족도)로 나누어 주사 대상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이 농촌거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연구 문제 1> 조사대상자의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 농촌의 의미와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2.1.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은 '(매우)있다'와 '보통'을 합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0%였다.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은 '(매우)긍정적이다'또는 '보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96.0%였다. 응답자에게 있어서 농촌의 의미를 묻는 문항에는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의견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20.0%),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18.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장년층이 농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으며, 농촌에 대하여 휴양에 도움이 되고 전원생활이 가능하며 노후의 생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성별, 학력, 직업, 종교 등 다른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농촌 거주 인식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한 반면, 연령에 따른 농촌 거주 관심과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표 1. 연령에 따른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항목	연령	평균	Duncan's		F 값
농촌 거주에 대한 인식	40세 미만	3.29	A		3.429*
	40세-50세	3.82	A	B	
	50세-60세	3.62	A	B	
	60세 이상	4.33		B	

* p < .05

만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세 미만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60대 이상의 연령대의 응답자가 농촌에 대한 좋은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도울 필요가 있다.

3. 농촌 거주 의사

<연구문제 2> 농촌 거주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행의향, 거주 기간, 거주 이유, 거주 예상 시기, 희망 거주 동행자, 희망 거주 유형, 준비 현황, 예산, 일(종류와 투자 정도),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 등을 분석하였다.

3.1. 농촌 거주 의사

농촌 거주 실행 의향은 '(매우)있다'또는 '보통이다'처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6.0%였다. 이에 따른 희망 거주 기간은 '주3일 이내', '2주 이내',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26.0%이었으며, 거주 희망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43%), '텃밭을 가꾸며 편히 살고 싶어서'(35.4%)가 대부분이었다. 농촌 거주 희망 시작 시기는 '직장 은퇴 이후' 와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시'가 각각 33.0%로 가장 많았다. 농촌 거주 희망 동행자로는 대부분이 배우자(75%)를 원하였다.

농촌에서의 희망 주거 유형은 '택지 매입 후 신축 등'(40.0%), '농가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39.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촌 거주 준비 정도에 대하여는 '거의(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은 58%였다. 농촌 거주 예상 예산은 응답자의 34%가 '50,000만원 이상' 이었으며, 농촌 거주 시 일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아직 모르겠다'가 44%, '있다'가 41%였다. 그에 따른 희망 직업은 '농업'이 50%로 가장 많았고, 투자 예상 금액은 '5,000만원이상~10,000만원 미만'이 28.4%였다. 농촌 거주 실행 의향으로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에서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이는 다수가 자연을 농촌의 흡입요인으로 인정하여 농촌 거주를 희망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이유로 준비를 적게 하고 있다고 해석 된다.

3.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 거주 의사

연령, 학력, 종교, 직업 등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농촌 거주 의사를 교차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농촌 거주 실행 의향 n=100

구분		성별		계	x^2
		남자(%)	여자(%)		
농촌 거주 실행 의향	없다	5(13.9)	9(14.1)	14(14)	10.962* df=3
	보통이다	4(11.1)	26(40.6)	30(30)	
	있다	19(52.8)	23(35.9)	42(42)	
	매우 있다	8(22.2)	6(9.4)	14(14)	
	계	36(100)	64(100)	100(100)	

* p < .05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농촌 거주 실행 의향은 독립적이지 않았다. 농촌 거주 실행 의향이 '(매우) 있다'라고 응답한 남자(36.0%)가 여자(64.0%)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적으로 농촌 거주 실행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성향과도 연결되는데, 외부에서 스포츠나 자연활동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실내 활동을 즐기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농촌의 흡입요인이 남성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성에게 농촌이라는 복지와 문화시설 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여가를 보낼 만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가사의 부담이 농촌에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었던 장을 보는 일이나 은행 업무 등과 같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실행 의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

<연구 문제3> 농촌 거주시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5점: 매우 중요하다, 4점: 중요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중요하지 않다, 1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4.1.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의료시설과의 거리(중요도 평균 4.16)가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시설과 설비, 이웃과의 친밀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향과의 거리, 이웃의 사회적 수준, 이웃의 신분은 고려 사항에서 제일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농촌으로 회귀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연환경이라는 흡입요인 때문인데, 자연환경은 또한 건강과 직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1순위로 의료시설과의 거리를 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향과의 거리에 대하여는 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이 많지만, 그 부모님 세대에 올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 중·장년층의 고향은 그 부모님의 고향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향을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웃의 신분과 사회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고, 도시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농촌 거주 시 고려사항 요인 분석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요인의 수를 7개로 지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측정 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7개의 요인으로 선정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이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5개의 항목 (에너지 절감 설비 여부, 인구밀도, 공동체 의식, 친척과의 거리, 고향과의 거리)를 제외시켰다. 분류된 성분은 측정 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입지, 단지, 주거품질, 여가, 사회, 혈연,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요인 별 농촌 거주 시 고려 사항

요인명명	평가항목	요인 부하치						
입지	대중 교통과의 거리	.799	-.004	.072	.208	-.032	.070	.133
	도심과의 거리	.746	.047	.157	.112	.037	.121	.164
	사회시설	.718	.061	.029	.028	-.007	.215	.166
	쇼핑센터와의 거리	.684	.117	-.116	.242	.262	.132	.048
	주택의 분양방식	.468	.172	.044	.198	.363	.120	.078
단지	단지의 조경과 수목	-.045	.746	.069	.274	-.042	-.025	.226
	주차 시설 여부	.048	.745	.068	.255	.112	.056	.117
	주택의 규모	.096	.743	.116	-.033	.086	-.003	.029
	단지의 외관	.093	.590	.090	.114	-.013	.117	.236
	주택 내부 공간 구조	.329	.512	.348	-.131	.116	.067	.209
주거 품질	사생활 보호	-.035	.074	.759	.234	.117	.157	.016
	안전시설과 설비	.073	-.014	.732	-.094	.075	.184	.270
	건물의 노후도	.107	.234	.638	-.152	-.082	.017	.284
	이웃과의 친밀감	-.040	.303	.497	.302	.045	.333	-.288
	일조 및 통풍	.258	.403	.472	.336	-.037	-.077	.053
	경비시설 여부	.023	.111	.435	.273	.367	-.066	.414
	감시카메라 여부	.246	.201	.398	.124	.197	-.058	.335
	의료시설과의 거리	.356	.095	.356	.333	-.139	.079	.295
여가	체육공원	.232	.207	.014	.809	.181	.086	.100
	공공문화시설	.241	-.028	.100	.762	.223	.204	.085
	운동시설	.218	.319	-.062	.759	.226	.123	.023
사회	이웃의 신분	.183	.078	.221	.099	.810	-.099	.007
	이웃의 사회적 수준	.104	.060	.031	.295	.790	-.017	.059
	이웃의 평판	-.026	.044	.100	.200	.548	.195	.274
혈연	자녀의 문화시설	.232	-.081	.109	.279	.047	.766	.168
	자녀의 교육시설	.323	.080	.204	.271	-.038	.747	.070
	고향과의 거리	-.045	.019	-.026	-.068	.579	.653	.081
	자녀와의 거리	.298	.310	.266	.059	.018	.577	-.173
경제성	주택의 투자가치	.190	.219	.074	.120	.009	.099	.765
	주택의 분양, 매매가	.238	.321	.199	-.068	.187	.072	.660
	운영 및 유지관리비	.164	.228	.255	.225	.291	.016	.588
Eigen-value		9.531	3.176	2.344	2.168	1.944	1.527	1.438
총분산(%)		10.640	9.744	9.620	9.340	9.130	7.789	6.695

4.2.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농촌 거주 시 고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4.2.1.1. 성별에 따른 요인

성별에 따른 요인별 농촌 거주 시 고려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농촌 거주 시 고려 요인 n=100

요인명 \ 성별	남	여	t값
입지	3.26	3.64	-2.543*
단지	3.18	3.34	-0.483
주거 품질	3.73	3.86	0.182
여가	3.35	3.50	-0.097
사회	3.25	3.17	0.263
혈연	3.81	3.70	1.841
경제성	3.13	3.43	-1.594

* p < .05, ** p < .01, *** p < .001, ns 유의하지 않음

입지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여자가 입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가용으로 주행을 많이 하는 남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이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사 일을 할 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거리가 주거환경 고려 사항 중 큰 요인으로 부각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2.1.2. 연령에 따른 요인별 고려 사항

연령에 따른 요인별 농촌 거주 시 고려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농촌 거주 시 고려 요인 n=100

항목	연령	평균	Duncan's		F값
여가	40세 미만	3.25	A		3.256*
	40-50세미만	3.32	A		
	50-60세미만	3.70	A		
	60세 이상	4.56		B	
사회	40세 미만	2.75	A		3.168*
	40-50세미만	3.21	A		
	50-60세미만	3.42	A		
	60세 이상	4.22		B	

* p< .05

여가와 사회 두 항목에 대하여는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응답자가 다른 낮은 연령대의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사회, 즉 이웃을 더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노인들이 건강을 위하여 여가시설(체육공원, 공공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을 많이 찾고 있는 것을 대변한다.

4.2.2. 주거 특성에 따른 요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고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인 가구원수, 주택 유형, 주택 소유 형태, 주택 거주 기간, 주택의 규모, 현재 주거 만족도 중에서 주택의 규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 주택 규모에 따른 농촌 거주 시 고려 요인 n=100

항목	연령	평균	Duncan's		F값
여가	30평 미만	3.30	A		3.756*
	30-40평미만	3.56	A	B	
	40평 이상	4.08		B	

* p < .05

4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다

른 응답자에 비해 여가를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평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다른 응답자에 비해 여가를 덜 고려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기대치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웰빙(well-being)',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는 요즘 주거환경을 말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주거환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점차 커져서, 귀농·귀촌은 중요한 주거 계획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중·장년층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귀농의 과정과 유형은 다양하여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묻고, 고려 사항들을 파악함으로써, 귀농에 대한 현재 중·장년층의 귀농 계획과 의사를 정확히 알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적절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0년 10월 11일~2010년 10월 28일까지 수거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100명의 중·장년층의 응답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대하여는 90%가 '있다', 9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촌거주 인식은 60세 이상의 연령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농촌의 장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서이며,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응답자들은 특히 더 농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경험에 의한 좋은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농촌 거주 의사에 대하여는 실행의향이 '(매우, 보통) 있다' (86%)고 응답했으며 희망 거주 기간은 '주3일', '2주 이내', '거의 매일'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78.4%)가 자연(텃밭을 가꾸며 편히 살고 싶어서,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을 농촌흡입요인으로 인정했다. 배우자와 함께(75%), 직장 은퇴 이후(33%)나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시(33%)에 택지나 농가주택을 매매,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거주하는 것(각각 39%,40%)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비는 (전혀)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58%) 일을 할 계획은 잘 모르겠으나(44%) 한다면 농업(56.8%)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실행의향은 남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농촌의 흡입요인인 자연에 대한 인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된다.

셋째, 전체 농촌 거주 고려 사항 중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의료시설과의 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귀농을 고려하는 연령대가 높고, 귀농을 하는 이유 또한 건강을 위하여 자연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입지(대중교통, 쇼핑센터, 사회시설과의 거리 등)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사나, 주거 부양을 위한 이동거리의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직이나 주택 규모가 큰 응답자는 소득이 높은 응답자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단지의 조경이나 경비시설 같은, 단지와 주거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가 시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외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고 연령으로 갈수록 이웃을 많이 고려하며, 여가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자녀가 없이 귀농하기에 외롭지 않도록 주변의 이웃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입지와 여러 여가 시설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중·장년층 남녀 모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 소득자를 위하여 높은 주거 품질의 주택을 개량, 확보해야 하겠다. 또한 고 연령층을 위하여 여가 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준비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농촌 생활에 적응을 돕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중·장년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흡입요인들을 많이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농림부(2006.07.12.). 베이비붐세대 절반이상, 은퇴 후 전원 생활 희망. **농림부 보도자료**, p. 2.
2. 농림수산식품부(2009.04.02.).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 추진. **농림부 보도자료**, p. 1.
3. 류현주·양세화·김선중·권명희(2008). 울산시 중·장년층 가구의 주의식과 주거선택. 한국주거학회, 2(1), 1-6.
4.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5. 박공주·김양희·박정윤(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 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45(1), 9-21.
6. 서수복(2010). 도 농의 출신 및 선호에 따른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 이주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부동산 연구, 20(1), 205-222.
7. 서수복(2010).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결정 요인 분석. 국토연구, 64(1), 21-37.
8.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2004). 은퇴 후 농촌 이주 희망자의 농촌생활과 일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439-442.
9.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 25(3), 139-153.
10. 윤순덕·박공주(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 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11. 최수명(2006). 도시 은퇴자를 위한 농촌 마을 조성방안. 한국지역 사회 생활 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 3-37.
12. 최정민(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발전가능성 및 수요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21(1), 89-101.